



## 2007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 협회장에 서성배 전 농림부 축산국장 선임



본회는 지난 3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장에 서성배 농림부 전 축산국장을 선임했다.

서성배 회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을 거쳐 축산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농촌공사 부사장직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현행 10명의 이사 중 (주)우림인티그레이션, (주)한일농원을 삭제하고 (주)청정계, (주)올품을 신임이사로 선임했으며, 황인옥 상임고문과 박영인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으며, 4월 중순경 개최 예정인 육계자조금 대의원 총회 결과를 감안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의자조금을 추진해서라도 닭고기 소비홍보 사업을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 ■ 서성배 회장 약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 미국아이오와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
- 駐日 한국대사관 농무관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과장(부이사관)
- 농림부 농업정책국 국장
- 농림부 감사관(이사관)
- 농림부 축산국 국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 한국농촌공사 부사장

■ 임기 : 2007년 4월~2009년 2월

## 육계자조금공동준비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 정부 관계관 참석, 자조금사업 조속한 출범 촉구

육계자조금공동준비위원회 실무협의회는 지난 3월 13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육계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위원들은 대의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대의원총

회 일정은 HPAI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날짜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HPAI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서면을 통해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례적으로 이날 회의에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정래 사무관이 참석해 “육계 자조금사업이 올해 출범하지 못할 경우 불용되는 예산을 또 다시 세울 수 없어 육계자조금 예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며 농림부의 입장을 밝혔다.

조 사무관에 따르면 농림부가 육계의무자조금 출법을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은 2006년과 올해 각각 30억원과 13억원이다. 한우와 양돈처럼 매년 육계의무자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내년에도 확보해 놓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조 사무관은 특히 “2005년 대의원을 선출한 후 아직도 사업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무자조금에 대한 육계업계의 필요성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다”고 지적하고 “자조금사업에 대한 육계업계의 의지를 보여주면 정부도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육계자조금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육계업계가 자조금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

### 2007년도 특집 방향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3월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2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4~5월호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편집위원들은 '2007년도 월별 특집 계획



(안)을 살펴 본 후 연 2회 정도는 ‘월간 닭고기’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내용으로 특집내용을 구성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4~5월호 특집 및 주요 편집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미 열처리 가공육 수출관련 현지점검 지연

### HACCP 조속 준비 요청

대미 열처리 가공육(삼계탕, 너깃 등) 수출과 관련하여 미국측 요구 중의 하나인 가공장 HACCP의 준비 미비로 미국 심사팀의 현지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본회 회원사 중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기관과 협의, 조속한 시일 안에 HACCP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미국측에서는 5~6개 작업장을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 바에 따라 농림부는 HACCP 등 준비가 완료된 수출 희망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미국측에 현지 점검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4월 9일은 ‘닭고기 먹는 날’